

# 한·중·일 삼국의 고대 나막신 연구

인 병 선

(짚풀생활사박물관 관장/문화재전문위원)

## I. 머리말

## II. 도구(道具)로서의 나막신

1. 중국
2. 일본

## III. 신발로서의 나막신

1. 중국
2. 일본
3. 신라
4. 백제

## IV. 맺음말

## 국문 요약

첫 번째 장에서는 도구로서의 나막신을 다루었다. 일본과 중국에는 있었고 한국에는 없었던 도구로서의 나막신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발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극적이기는 하나 형태나 기능에 있어 나막신의 요소를 갖추었고, 아직 밝혀지진 않았으나 어쩌면 도구로서의 나막신이 신발로서의 나막신의 전단계일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앞머리에 언급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신발로서의 나막신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최근 경산시 임당동과 부여군 능산리에서 각각 신라, 백제 나막신이 출토되었다. 동시대 인접한 국가인데도 두 나막신의 형태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반면 백제 나막신과 일본 고대 나막신은 놀랄 만큼 동일하다. 이 동일성의 원인을 여러 가지 문헌자료를 통해 고대 한·일 정치, 외교 관계로 규명하려 노력하였다.

주제어 : 신발, 나막신, 게다, 부여 능산리 유적, 경산 임당동 유적

## I. 머리말

최근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sup>1)</sup>와 경북 경산시 임당동<sup>2)</sup>에서 각기 백제, 신라 것으로 추정되는 나막신이 출토되었다. 그 형태는 놀랍게도 우리가 최근까지 신었던 고무신형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현재도 신고 있는 판자형이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는 일본인들을 가리켜 쪽발이라고 불렀다. 판자형 나막신을 신은 발끝이 쪽 찢어졌다 해서 붙힌 명칭이다. 이 명칭에는 식민지 지배자에 대한 피지배자의 증오와 혐오가 담백 베어 있다.

그런데 최근 이 계대와 동일한 나막신이 위의 두 지역에서 출토됨으로써 우리도 고대에는 쪽발이였고, 그 쪽발이의 원조는 사실은 우리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발은 발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원시인들은 발을 어떻게 보호했을까. 나무껍질이나 풀 또는 짐승의 가죽을 발바닥에 대고 칩 같은 덩굴로 칭칭 동여맸을 것이다. 이 원시 단계에서 조금 발전한 고대의 신발들이 대개 신바닥과 끈만으로 구성된 것은 그 때문이고, 판자형 나막신도 그 중 하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고대에는 한·중·일 삼국이 모두 이 판자형 나막신을 신었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 후 한국과 중국은 다른 형태로 바뀌었고 일본은 같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

우리는 언제부터 판자형 나막신을 신었을까. 판자형 나막신은 언제 고무신형 나막신으로 바뀌었을까. 이 고무신형 나막신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 창안해낸 것일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전래된 것일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나막신은 신발의 하나로서 복식사(服飾史)의 중요한 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는 아직 그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 글은 최근 발굴된 백제, 신라 나막신을 중심으로 한·중·일 삼국의 고대 나막신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 신발사의 한 부분을 해명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연구를 위해 귀중한 발굴 조사 자료를 기꺼이 협조해 준 국립부여박물관과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1) 국립부여박물관, 2003, 『百濟의 度量衡』, 예맥출판사, p.42.

2) 국립대구박물관, 2000, 『압록 사람들의 삶과 죽음』, 통천문화사, p.120.

## II. 도구(道具)로서의 나막신

나막신에는 도구로서의 나막신과 신발로서의 나막신, 두 종류가 있다. 도구로서의 나막신은 바닷가에서 어로작업을 하거나 물이 고인 논에서 농업을 할 때 신는 것이다. 신발이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걸거나 달릴 때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구로서의 나막신은 신발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끈이 달려 발에 쥘 수 있게 되어 있고 작업하는 장소까지는 어쨌든 어렵게라도 발을 떼어 걸어갔다든 점에서 신발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도구로서의 나막신이 먼저 생겼는지 신발로서의 나막신이 먼저 생겼는지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만일 도구로서의 나막신이 먼저 생겼다면 이는 신발로서의 나막신의 전단계로서 신발사(史) 규명에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도구로서의 나막신을 따로 항목을 두어 다루었다.

한·중·일 삼국 중에서 도구로서의 나막신을 가장 다양하게 또 광범위하게 사용한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서기전부터 근대까지 줄곧 사용해 왔는데 대륙으로부터 전래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중국도 고대에는 이 도구로서의 나막신을 신었던 것 같다. 그러나 한국은 전혀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 1. 중국

중국 전한(前漢)의 사학자 사마천(司馬遷)이 편찬한 사기(史記)에는 진흙 위를 다닐 때 신던 교(橇)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맹강(孟康)이 말하기를 교는 그 모양이 키와 같고 진흙 위를 갈 때 흙을 긁어서 간다3).’

이 교는 일본의 도구로서의 나막신인 판자형 다게다(田下駄)와 같은 것이다.

3) 駟案孟康曰，橇形如箕撻行泥上

## 2. 일본

일본의 도구로서의 나막신은 신발로서의 나막신에 비해 훨씬 역사가 깊다. 도구로서의 나막신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시즈오카현 도로유적(静岡縣 静岡市 登呂遺蹟)에서 발굴된 야요이시대(彌生時代) 유물이다<sup>4)</sup>. 야요이시대는 서기전 4세기부터 서기 3세기에 해당된다. 도로유적에서는 당시의 여러 가지 귀중한 생활유물과 함께 다케다, 오아시(大足), 굽이 둘 달린 게다가 출토되었다. 다케다, 오아시는 논농사를 지을 때 신은 것이고 굽이 둘 달린 게다는 신기 위한 나막신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이것 역시 도구로서의 나막신의 하나라고 본다.

### (1) 다케다(田下駄)

다케다는 말하자면 논나막신이다. 다케다는 거름이 될 풀이나 나뭇가지를 논바닥에 밟아 넣거나, 무논에서 벼를 벨 때 발이 빠지지 않도록 신었다. 크기는 대체로 크고 긴 것은 길이가 120cm나 되는 것도 있다. 굽이 없으며 한가운데 발을 묶는 끈이 장치되어 있다.



사진 1. 다케다 1



사진 2. 다케다 2

4) 丸山茂樹監修, 1986, 『日本はきの博物館』, 廣學圖書, p.18.

(2) 하다게다(畚下駄)

하다게다는 발나막신이다. 하다게다는 다게다에 비해 많지 않았다. 다게다는 전국에서 사용되었지만 하다게다는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되었다. 하다게다는 높은 것이 특징이다. 마치 물통을 엮어놓은 것 같은 모양에 발을 꿰는 끈을 달았다. 하다게다는 과수원에서 배나무가지를 솎아 내거나 딸 때, 또는 포도나무가지를 손질할 때 올라서서 일하기 위해 신었다.

(3) 하마게다(浜下駄)

하마게다는 어민들이 뜨거운 여름날 해변에서 장시간 일할 때 신었다. 모양은 일본의 보통 게다와 같으나 굽이 없는 것이 다르다.

(4) 사까나도리게다

사까나도리게다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 고안된 게다이다. 바닥에 대못을 촘촘히 박아 물고기를 밟아 잡게 만든 것이 있는가 하면 깊이 얇은 바다에서 발이 빠지지 않게 밟고 서서 그물을 치거나 새우를 건져 올리도록 만든 것도 있다.

그 밖에 미나리를 썰 때 신는 통게다, 높이 150cm가 넘는 김 양식용 게다 등 특이한 것들이 있다.



사진 3. 사까나도리게다

### Ⅲ. 신발로서의 나막신

신발로서의 나막신은 일상생활에서 신기 위한 신발이다. 도구로서의 나막신이 도구로서의 기능에 목적을 두었다면 신발로서의 나막신은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걷고 달릴 수 있는 기능에 목적을 둔 것이다.

그러나 나막신은 그 재료가 나무라고 하는 결정적인 제약이 있다. 나무는 고무나 가죽 같은 탄력성도 유연성도 없다. 딱딱하고 뻣뻣할 뿐인데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바닥 앞과 뒤 두 곳에 반드시 높은 굽을 붙였다. 굽은 발을 앞으로 떼 놓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장치인 것이다.

나막신은 무게의 대부분이 아래에 몰려 있다. 두꺼운 신바닥에 굽까지 붙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것을 지탱해주는 것은 고작 발등을 가로지르는 끈 두 가닥뿐이다. 자연히 착용감은 덜하고 걸기에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

나막신의 또 하나 큰 문제는 소리가 나는 것이다. 걸을 때마다 딸각딸각 소리가 나기 때문에 우리말에 딸각발이라는 명칭이 있다. 신발이 없어 굽은 날이나 갠 날이나 가릴 것 없이 나막신만을 신는 선비를 가리킨 호칭이다.



사진 4. 현대 나막신

조선시대에는 원칙적으로 나막신은 비오는 날에만 신었다. 조선시대 나막신은 고대와 달리 고무신형 나막신이였다. 고무신형은 판자형보다 세련되긴 했으나 소리가 나서 품

위가 없기는 매일반이었다.

반면 일본은 판자형 나막신을 현재까지도 애용하고 있고 일기에 관계없이 상용하고 있다.

## 1. 중국

고대 중국에서는 나막신을 나무 목(木), 나막신 극(屐) 자를 써서 목극(木屐)이라 했다. 이 목극은 후한 말(後漢末 25~225)에 이미 계급이 낮은 남녀들 사이에 일반화되어 있었고, 형태는 나무 조각에 굽이 둘 달려 있었다. 진(晉 265~419)시대에는 목극이 크게 유행하여 유명한 왕자(王子) 경(敬) 형제가 굽 높은 목극을 신었다고 전한다(『中國社會風俗史』尙秉和)<sup>5)</sup>.

이것으로 고대 중국 나막신은 판자형 나막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 2. 일본

일본의 신발로서의 나막신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기내(畿内), 관동(關東) 등지에서 출토된 석제(石製) 나막신이다. 이것은 고훈시대(古墳時代 400~700) 것으로 무덤에 사자(死者)와 함께 묻은 길이 12cm 내외의 미니어처 부장품(副葬品)이다. 이 시대 굽 달린 부장품 나막신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굽이 팔(八)자로 아래가 벌어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마귀 같은 돌기가 넷 붙어 있는 것이다. 이 부장품 석제 나막신에 대해 일본의 학자들은 각기 다음과 같은 주장을 적고 있다.

‘이 부장품 석제 나막신은 사자가 생전에 소중하게 여긴 것을 관에 넣어 저 세상에 가서도 쓰게 하려는 것으로 그 중에는 붉은 색을 칠한 것도 있다. 당시 두 굽 신이 일상화되어 있었다면 굳이 부장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므로 이것은 진귀한 수입품으로서 귀인이나 호족(豪族)이 의례적으로 신은 것을 모방하여 저 세상에 가져가도록 한 것이다.’<sup>6)</sup>

5) 潮田鐵雄, 1973, 『はきもの』, 法政大學出版局, p.71.

6) 潮田鐵雄, 1973, 앞의 책, p.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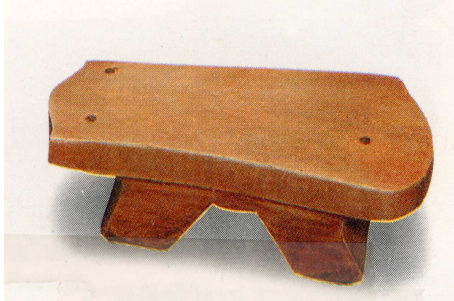


사진 5. 일본 고훈시대 나막신



사진 6. 짚신모양 이형토기

‘미니어처 나막신이 부장되어 있는 것은 생전에 사자가 나막신을 애용했다는 것과 혼치 않은 귀중품이었다는 것을 증명한다<sup>7)</sup>.’

비슷한 시기에 바다 건너 신라에도 신발 모형을 무덤에 부장품으로 넣는 풍습이 있었다. 흙으로 빚은 짚신모양 이형토기(異形土器)이다. 현재 남아 있는 신라의 짚신모양 이형토기는 모두 5점이다. 이 토기들은 하나같이 굽이 높은 제기(祭器) 모양이고 술잔을 짚신으로 받치고 있는 형태이다. 이 이형토기는 사자의 영혼을 저 세상으로 보내는 의미가 있다고 학자들은 해석한다. 신발은 걸어가는 것을 뜻하고 술잔은 영혼을 담는 그릇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일본인들의 해석과는 사뭇 다르다.

사람이 죽으면 짚신을 놓는 것은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우리의 풍속이다. 무덤에 넣어 주는 것은 몰라도 출상(出喪) 전까지 대문 밖에 짚신과 돈과 밥을 놓는다. 이는 죽은 사람이 멀고 험한 저승길을 떠나기에 앞서 새 신을 갈아 신고 배불리 먹고 노자 돈 가지고 편안히 가라는 뜻이다<sup>8)</sup>.

위에 인용한 일본인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혼치 않은 귀중한 것’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외래품’이라는 것이다.

당시 나막신이 ‘혼치 않은 귀중한 것’으로 대중적인 신발이 아니었다는 생각은 중국의 사서(史書) 수서(隨書)의 한 기록에 근거를 두고 있는 듯하다. 수서 동이전 왜국조(隨書東夷傳倭國條)에는 ‘인서다선족(人庶多跣足)’이라는 글이 있다. 즉 ‘왜인 서민 대부분은 맨발로 산다’는 뜻이다. 수서는 서기 643년에 간행된 중국 수나라의 역사서이다. 이 수서가 간행된 시기는 일본의 고훈시대 후기에 속하고, 따라서 부장품 석제 나막신의

7) 丸山茂樹監修, 1986, 앞의 책, p.105.

8) 한국 신발 부장품 사례는 무수히 많으나 고대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신라의 짚신형 이형토기(異形土器)와 백제 무녕왕릉의 금동식리(金銅飾履)를 꼽을 수 있다.

연대와도 거의 맞아떨어진다.

다음 ‘외래품이었다’는 생각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알 수 없다. 일본인들은 기원 전부터 다게다, 하다게다 등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다. 이것은 물론 농업, 어업에 사용한 도구일 뿐 진정한 의미의 신발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 자연스럽게 신발로서의 나막신으로 개량, 발전될 수도 있었을 텐데 구태여 외래품이라고 보는 것은 흔치 않은 귀중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전제된 데다 중국에서 후한말에 나막신을 신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본의 나막신이 자연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대체 어디에서 전래된 것일까. 중국에서 건너간 것일까. 아니면 한국에서 간 것일까. 우리 고대 국가의 나막신이 출토되지 않았을 때는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 부여와 경주에서 백제, 신라 것으로 추정되는 나막신이 잇따라 출토되었다.

일본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것은 나라 헤이조규(奈良 平城宮) 유적에서 발굴된 두 종류의 나막신이다<sup>9)</sup>. 이 나막신들은 부장품이 아니라 실제 신었던 목제(木製) 신발이다. 하나는 판자형 나막신이고 또 하나는 굽이 없이 발등이 덮이고 뒤축까지 있는 영락없는 현대의 구두와 같은 나막신이다. 이 출토품들은 당시 일본에는 두 종류의 나막신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사진 7. 일본 헤이조규 유적 목제 나막신

우는 것이니까 이 나막신은 오른발에 신는 신발이 틀림없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구별하여 앞 구멍을 치우치게 뚫는 것과 굽을 바닥과 한 몸으로 만드는 것이 고대 나막신의 특징이라고 일본 학자들은 주장한다.

이 판자형 나막신은 그 형태에 있어서나 특징에 있어서나 최근 부여 능산리에서 출토된 백제 나막신과 똑같다. 신라 나막신과는 다르고 백제 나막신과는 동일한 이 나막신

판자형 나막신에는 굽이 둘 있다. 이 굽은 따로 붙인 것이 아니라 바닥과 한 몸에서 파내 만든 것이다. 또 이 나막신에는 바닥에 구멍이 셋 뚫려 있다. 앞 축에 하나, 양옆에 하나씩이다. 이것들은 모두 신을 신는데 필요한 끈을 고정하는 자리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앞 축의 구멍은 한가운데가 아니라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 뚫려 있다. 끈은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 끼

9) 丸山茂樹監修, 1986, 앞의 책, p.19.

이 4세기부터 수많은 백제 이주민들이 정착한 나라(奈良)지역에서 출토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던지는 암시가 너무 크다.

헤이조규는 나라시대(710~794)에 나라 북부에 세워졌던 도성이다. 여기에서 잠시 나라시대 이전 한·일관계를 살펴볼 필요를 느낀다. 5세기 이전부터 백제, 고구려, 신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이주했다. 그들은 주로 교오또(京都), 나라(奈良) 등지에 정착하여 선진 농업과 기술로 일찍부터 세력을 떨쳤다. 6~7세기에는 대륙의 학문과 문화가 물밀 듯이 밀려들었다. 백제에서 오경박사(五經博士)가 갔고, 불경(佛經)이 전래됐으며, 관록(觀勒)이 역서(曆書)와 천문지리(天文地理)에 관한 서적을 전하는 한편 둔갑방술(遁甲方術)을 가르쳤고, 고구려 중 담징(曇徵)이 채료(彩料), 종이, 먹 등을 전했다. 이 모든 것이 밀거름이 되어 이 일대에는 아스까문화(飛鳥文化)가 활짝 꽃피었고, 이 아스까문화는 일본 문화의 영원한 뿌리가 되었다.

일본의 대보율령(大宝律令)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다.

‘전리전혁백제수부박부백제호박호(典履典革百濟手部狛部百濟戶狛戶)<sup>10)</sup>’

대보율령은 서기 701년에 완성하여 이듬해부터 시행한 일본 최초의 고대 법전(法典)으로서 위의 조항은 중앙행정부의 직무에 관한 행정법(行政法)의 일부이다.

위의 조항을 풀이해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부에는 전리(典履), 전혁(典革)을 두었는데 전리는 신발 만드는 일, 전혁은 가죽 다루는 일을 관장하는 부서이다. 전리는 백제에서 온 기술집단이 맡고, 전혁은 고구려에서 온 기술집단이 담당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으로 당시 우리 삼국과 일본의 관계가 어떠했으며 일본 국내, 특히 헤이조규가 있던 나라 지역에서 백제, 고구려인들의 영향력이나 위상이 어떠했는가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백제 나막신과 헤이조규 유적 나막신이 동일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역사적인 증거가 되기도 한다.

### 3. 신라

영남문화재연구원은 1997년 경북 경산시 임당동(慶北 慶山市 林堂洞) 유적 조사 과정에서 4세기 전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거지 유구(遺構)와 바로 인접해 있는 저습지 유구를 발견하였다.

10) 大塚民俗學會 編集, 1994, 『日本民俗事典』, 弘文堂, p.176.

4세기면 원삼국시대이다. 이보다 거슬러 올라가 삼한시대에는 이 지역에 압독국(押督國)이라고 하는 소왕국이 있었다. 이 압독국은 서기 102년에 신라에 점령당해 신라의 한 군(郡)으로 편입되었다<sup>11)</sup>.

저습지에서는 토기류, 목기류, 골각기, 철기, 석제품 등 다양한 생활 유물들이 수 백 점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대부분 손상된 것으로서 주거지에서 버린 생활 쓰레기일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한다. 문제의 나막신이 발견된 곳도 이 저습지이다. 조사자들은 처음에 이것이 나막신인 줄 몰랐다고 한다. 나무 7조각이 한 곳에 오롯이 남아있어 수습해 맞춰보니 나막신 한 짝이었는데 처음부터 쪼개져 있었다기보다는 오랜 세월 흙의 압력으로 생긴 결과라고 본다<sup>12)</sup>.



사진 8. 신라 나막신 뒷면



사진 9. 신라 나막신 앞면

나막신은 길이 25cm, 너비는 앞축 쪽이 10.5cm, 뒷축 쪽이 9cm로 약간 이지러진 사각형이다. 높이는 앞과 뒤가 조금 달라서 앞쪽이 5.8cm, 뒤쪽이 5.3cm, 뒤가 앞보다 0.5cm 낮고, 굽만은 높이가 5cm 정도이며, 굽의 두께는 2.7cm이다. 굽은 바닥에 비해 두껍고 높으며 많이 닳은 것이 육안으로도 뚜렷이 확인된다. 바닥의 윗면은 평평하지 않고 약간 기복이 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어 섬유질이 변했기 때문이다. 무게는 153.4g인데 실제로는 그보다 무거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나막신의 중요한 특징은 (1) 4각이라는 것, (2) 굽과 바닥이 한 몸이라는 것, (3) 앞 구멍의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4) 끈 구멍이 5개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11) 국립대구박물관, 2000, 앞의 책.

12) 국립대구박물관, 2000, 앞의 책, p.120.

## (1) 4각이라는 것.

모든 신은 기본적으로 앞과 뒤가 등글다. 사람의 발 모양이 그렇기 때문이다. 같은 고대 나막신인데도 부여 능산리 출토 백제 나막신은 앞뒤가 등글다. 그러나 이 나막신은 전체 모양이 사각이고 뿐만 아니라 앞축 쪽이 뒤축 쪽보다 1.5cm나 넓다.

일본의 도구로서의 나막신에는 사각형이 많다. 사각형일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크기 까지 하다. 이런 것을 신고는 신발끼리 부딪치고 겹쳐져 보행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이 신라 나막신이 도구로서의 나막신이라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도구로서의 나막신이 있었던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굽이 있는 것과 크기로 보아 신발로서의 나막신이 분명한데 앞축이 뒤축보다도 넓고 게다가 귀통이가 각지기까지 하여 신고 걸기에는 어지간히 불편했을 듯싶다. 앞뒤축을 네모지게 하는 것이 후려서 등글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제작하기가 쉽다. 요컨대 이 나막신은 서툰 솜씨로 자기 발에 맞춰 자신이 제작한 것이 분명하고 아울러 당시까지만 해도 신라 나막신의 역사는 그리 깊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 (2) 굽과 바닥이 한 몸이라는 것.

일본은 고대에서 현대까지 일관되게 판자형 나막신을 신어온 나라이다. 거기에 걸맞게 나막신 전문가가 많은데 그들이 규정하는 고대 나막신의 특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바닥과 굽이 한 몸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 구멍이 한쪽으로 치우쳐 뚫려 있는 것이다.

바닥과 굽이 한 몸이라는 것은 통나무 하나를 깎아 바닥과 굽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후에 와서는 굽을 따로 깎아 바닥에 박았는데 이렇게 하면 제작이 훨씬 용이할 뿐만 아니라 재료도 경제적이다.

## (3) 앞 구멍의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일본 학자들은 앞축쪽 구멍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역시 고대 나막신만의 특징이라고 말한다<sup>13)</sup>. 오른쪽은 왼편으로 약간 치우치게, 왼쪽은 오른편으로 약간 치우치게 뚫렸다는 것이다.

앞구멍은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 사이에 끼우는 끈이 연결되는 구멍이다. 발을 올려놓고 위치를 정했을 때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것은 곧 고대 나막신은 신을 사람이 자기 발에 맞춰 스스로 제작한 자가 제품이었음을 증명한다. 후

13) 潮田鐵雄, 1973, 앞의 책, p.57.

대에 오면서 앞구멍은 한가운데로 고정된다. 그것은 나막신 제작이 기능인들의 대량생산체제로 바뀌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나막신은 앞구멍이 왼편으로 약간 치우쳐 뚫려 있다. 구멍의 위치로 보아 오른발에 신은 오른쪽이었음이 분명하다. 끈구멍의 생김새를 보면 앞구멍은 등근 게 확실하지만 옆구멍들은 언저리가 훼손되어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하면 그 흔적으로 미루어 정사각형에 가까운 사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끈은 모두 유실되어 흔적조차 없다. 그러나 그 구멍의 생김새로 보아 어떤 끈이었는데는 짐작할 수 있다. 앞구멍에는 노끈 고리가 걸려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옆구멍들에는 좁고 두툼한 가죽끈이나 형짚끈이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다.

#### (4) 구멍이 5개라는 것.

판자형 나막신에는 대부분 구멍이 3개 뚫려 있다. 앞축 가운데와 양옆에 하나씩이다. 백제 나막신이 그렇고 일본 것이 모두 그렇다. 그런데 이 나막신은 특이하게도 구멍이 5개이다. 앞축과 양옆에 각각 2개씩이다.

백제 나막신은 끈 2가닥으로 가~나, 가~다만 연결하면 된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단순하여 가에 고리를 만들고 나에서 시작한 끈이 가의 고리를 통과하여 다에 와서 맺어지는 구조이다. 그러나 신라 나막신은 그리 간단치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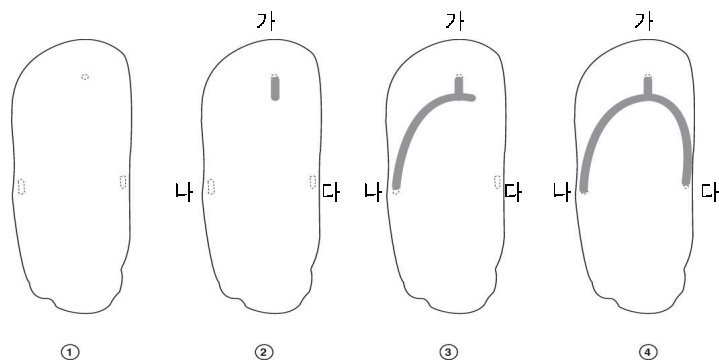


그림 1. 백제 나막신 끈 연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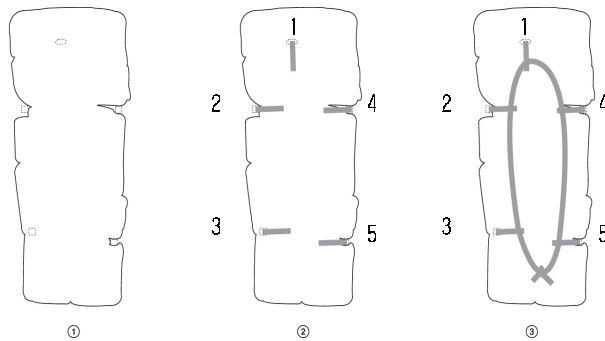
두 나막신의 뒤쪽 구멍, 즉 백제의 나, 다와 신라의 3, 5의 위치를 비교해 보면 3, 5의 위치가 훨씬 뒤쳐져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가에서 나, 다까지의 길이에 비해 1에서 3, 5까지의 길이가 훨씬 길다는 것을 뜻한다. 끈이 짧은 나막신은 걸을 때 끌며 걷게 되고 끈이 길면 자연 신이 발에 붙는 율이 높다. 근원적으로 이 두 나막신에는 그런 차이가 있다.

백제 나막신은 가 부분에 발가락만 끼우면 신을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신라 나막신은 어떤 방식으로 끈을 꿰었고, 어떻게 신었는지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다.

두 가지 방법을 상정해 볼 수 있다.

1) 구멍 5개에 각각 길이 4~5cm 되는 고리를 만든다. 그리고 긴 끈 하나로 그 5개의 고리를 모두 관통하여 뒤축 쪽에서 매준다. 이것은 신라 짚신 이형토기(異形土器)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이 나막신을 이형토기와 같은 유형이라고 보기에는 큰 문제점이 하나 있다. 이형토기에는 뒤축에서 뒤꿈치를 따라 올라가는 도갱이가 있다. 그런데 그것이 빠져 있는 것은 끈 전체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방법 1)



방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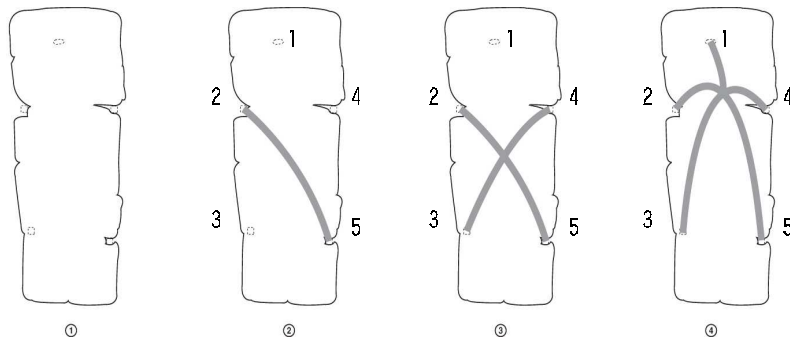


그림 2. 신라 나막신 끈 연결 방법

2) 두 번째는 2~5, 3~4를 각각 연결하고 그 X 부분을 1에서 나온 고리로 매주는 방식이다.

이 1)과 2)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것이 신라시대의 실제였는지는 지금 알기 어렵다. 그러나 두 가지 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 4. 백제

이 나막신은 충남 부여군 능산리사지(陵山里寺址)에서 출토되었다<sup>14)</sup>. 능산리사지는 서기 567년에 건립된 백제 절의 유적지이다. 이 절터는 1993년 금동대향로(金銅大香爐)가 나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 절터에 대한 발굴조사는 1992년 이래 총 8차례에 걸쳐 시행되었다. 나막신이 출토된 것은 7차 조사에서였다.



사진 10. 백제 나막신 아랫면



사진 11. 백제 나막신 윗면

나막신은 능산리 절이 건립되기 이전 것으로 보이는 한 수로(水路) 유구(遺構)에서 통나무, 목간(木簡) 등 다른 유물과 함께 발굴되었다. 그러니까 나막신의 연대는 절 건립 전, 그러니까 서기 567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나막신은 한 짝만 출토되었다. 출토 당시 뒤집혀 있었는데 뒷굽 일부만 떨어져나갔을 뿐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 나막신은 길이 24cm, 너비 9cm, 높이 5.7cm, 앞굽 높이 3.5cm이고, 재질은 소나무로 보인다. 끈은 남아 있지 않고 끈구멍은 모두 3개인데 앞의 것은 둥글고 양옆의 것은 긴 직사각형이다.

이 나막신의 중요한 특징은 (1) 신바닥이 발 모양을 본뜬 것, (2) 굽과 바닥이 한 몸이라는 것, (3) 앞구멍의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4) 끈구멍이 3개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14) 국립부여박물관, 2003, 앞의 책, p42.



## (1) 신바닥이 발 모양을 본뜬 것.

모든 신의 바닥은 기본적으로 발바닥과 같게 만든다. 지금도 맞춤 구두는 종이 위에 발을 올려놓고 테두리를 그려 제작한다. 신바닥의 크기가 발바닥과 같아야 편하게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막신도 마찬가지이다. 판자형 나막신이 가장 흔한 일본의 경우에도 앞뒤를 후려 등근 것이 일반적이다. 고대 나막신을 보면 일본 기나이(畿内), 간토우(關東) 지역에서 출토된 서기 4~7세기로 추정하는 부장품(副葬品) 석제(石製) 나막신이나 8세기 나라시대(奈良時代) 것으로 추정하는 목제 나막신이나 모두 백제 나막신과 형태가 같다. 고대 나막신 중에는 신라 나막신만이 사각인데 이것은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

## (2) 굽과 바닥이 한 몸이라는 것.

이 나막신은 굽과 바닥이 한 몸이다. 즉 나무 하나를 파서 바닥과 굽을 만든 것이다. 이것은 고대 나막신의 중요한 특징이다. 후대에 오면 굽을 따로 깎아 바닥에 붙이게 된다. 통나무를 깎아 바닥과 굽을 만드는 것보다는 굽을 따로 붙이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재료 면에서나 경제적이다. 굽을 따로 붙일 때는 바닥에 홈을 내어 박는 기법을 쓴다. 그래야 체중이 온통 실려도 굽이 견뎌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 나막신은 모두 굽과 바닥이 한 몸이다. 일본 출토품들이 그렇고 신라 나막신도 그렇다.

## (3) 앞구멍의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

이 나막신에는 구멍이 모두 3개 뚫려 있다. 앞축 쪽과 양옆에 하나씩이다. 이 구멍들은 발등에 걸치는 끈을 꿰기 위한 장치이다. 앞구멍의 끈은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 끼워 신는다. 이것은 발의 구조상 불가피한 원칙이다. 이 두 발가락 사이는 발등 전체로 볼 때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왼발은 오른쪽으로, 오른발은 왼쪽으로 치우쳤다. 앞구멍이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것은 신을 사람의 발에 맞춰 맞춤으로 제작했다는 증거이다. 앞구멍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 역시 고대 나막신의 특징 중 하나이다. 후에 생산자들에 의해 기성품화하면서부터는 앞구멍이 모두 한가운데 뚫리게 된다.

이 나막신은 앞구멍이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 뚫려 있다. 구멍의 위치로 보아 왼발에 신은 왼쪽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제 나막신의 끈구멍을 자세히 보면 앞구멍은 둥글고 옆구멍들은 긴 직사각형이다. 끈은 하나도 남지 않았지만 이 구멍의 생김새로 어떤 끈을 사용했었는가 짐작할 수 있다. 앞구멍에는 노끈 같은 것으로 고리를 만들어 끼웠을 것이다. 노끈을 적당한 길이로

접어 구멍에 끼우고 빠지지 않게 뒤에서 단단히 매듭을 지었을 것이다. 보다 확실히 하려면 매듭에 나뭇가지 같은 것을 끼워 빠져 나오지 않게 조치했을 수도 있다.

고리를 끼우고 나면 넓적한 끈을 마련하여 한쪽 옆구멍에서 시작하여 다른 쪽 옆구멍에서 마무리했을 것이다. 넓적한 끈은 가죽을 썼을 수도 있고 형겁을 접어 썼을 수도 있다. 끈의 이런 형태는 발등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백제 나막신은 대단히 선진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 IV. 맺음말

나막신에는 도구로서의 나막신과 신발로서의 나막신 두 종류가 있다. 도구로서의 나막신은 농어업의 도구일 뿐 진정한 의미의 신발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신발로서의 나막신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앞머리에서 짚막하게 다루었다.

최근 충남 부여와 경북 경산에서 각기 백제, 신라 것으로 추정되는 나막신들이 출토되었다. 이 나막신들은 아직 정식으로 학계에 소개되지 않았다.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두 나막신의 형태와 구조를 상세히 소개하는데 우선 역점을 두었다.

이 두 나막신의 출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중·일 삼국의 신발사(史) 연구에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이다. 신라와 백제의 나막신은 형태와 구조에서 판이하게 다르다. 반면 비슷한 시기의 일본 나막신과 백제 나막신은 놀랄 만큼 동일하다. 이 일치는 당시의 정치, 외교적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고, 거꾸로 나막신을 통해 고대 정치, 외교 관계를 규명하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는 판자형 나막신이 일본에만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백제, 신라 나막신의 출토는 고대에는 동양 삼국의 보편적인 신발이었고, 어쩌면 일본의 나막신은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래되었을 가능성마저도 시사한다.

백제 나막신은 끈구멍이 3개이고 신라 것은 5개이다. 이것은 단순한 구멍수의 차이가 아니라 신발 형태의 두 흐름의 시작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서이다.

끈구멍이 3개인 것과 5개인 것의 차이는 쉽게 예를 든다면 현대의 샌들과 운동화의 차이와 같다. 샌들은 발가락에 걸어 끌며 걷는 것이고, 운동화는 발을 들이밀어 발바닥과 신발바닥이 밀착된 상태에서 걸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다. 백제 것은 끄는 것이었고, 신라 것은 신는 것이었다. 이 차이는 짚신에도 그대로 이어져 백제 짚신과 신라 짚신은 그 형태뿐만 아니라 신는 형식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 참 고 문 헌

『晉書』

『隋書』

『後漢書』

『三國史記』

『高麗圖經』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金英淑, 1988, 『韓國服飾史辭典』, 民文庫.

국립경주박물관, 2002, 『國立慶州博物館敷地內 發掘調査報告書』.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1,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學術研究叢書 第29輯 宮南池 1.2』.

인병선, 1995,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짚풀문화』, 玄岩社.

鈴木俊彦, 1996, 『日本大百科全書』, 小學館.

大塚民俗學會, 1994, 『日本民俗事典』, 弘文堂.

民具製作技術保存會, 1978, 『民具のつくり方 4』.

潮田鐵雄, 1973, 『はきもの』, 法政大學出版局.

丸山茂樹監修, 1986, 『日本はきもの博物館』, 光學圖書.

日本はきもの博物館, 1885, 『日本のはきもの』.

新村出編, 1995, 『廣辭苑』, 岩波書店.

## Abstract

### **Ancient Wooden Shoes Research of Korea, China and Japan**

*In, Byung-Sun*

We dealt with the Wooden Shoes as a tool in the first chapter.

You can doubt about the Wooden Shoes as a tool, which they were in Japan and China not Korea, strictly speaking, if they are real shoes or not.

But anyway they had components of the Wooden Shoes in shape(form) or function, so it was expressed in the head part, cause of the possibility that Wooden Shoes as a tool are the previous stage of Wooden Shoes as shoes, though are not identified yet.

In the second chapter, we dealt with the Wooden Shoes as shoes fundamentally.

Recently, the Wooden Shoes of Shilla and Baekje were dug out each in Kyungsan-city Im-dang-dong and Buyeo-gun Neungsan-lee.

Even though they were contemporary neighborhood countries, they had much differences in their forms of Wooden Shoes.

While the Wooden Shoes of Baekje and the ancient Wooden Shoes of Japan are surprisingly alike.

So we have tried to identify with the politic and diplomatic relation of Korea and Japan, through various literature records.

Keyword : Shoes, Wooden Shoes, Gaeda, Buyeo Neungsan-lee Historic Remains, Kyungsan Imdang-dong Historic Remains